

도시화 규모에 따른 미취학자녀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교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Urban and Rural Area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석사과정 유재언**

부교수 진미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Master Student : Yoo, Jae-Eon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scales and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Communities were identified into three groups: metropolit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rural, according to the degree of urbanization.

The data were drawn from a sample of 1,038 parents who had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s, GI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This study compared the level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both at the 'dong' and 'si' levels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factors, the level of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differed by the community scales. The parent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had higher scores on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than their counterparts in metropolitan communities. And parents in rural communities received had lower scores in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than those in metropolitan communities. The results also showed similar patterns for the 'dong' and 'si' models. While job and housing type were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the community,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educational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ome ownership were not.

▲주요어(Key Words) : 도시화 규모(urbanization scale), 지역사회 범위(community boundary), 가족친화적 지역사회(family-friendly community), 아동돌봄(child care), 도시화 정도(urbanization)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413-350-20110028).

** 주저자 · 교신저자 : 유재언(E-mail : jjagjjag@naver.com)

I. 문제제기

최근 ‘마을 만들기’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만들기’가 가족정책의 주요한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돌봄의 사회적으로 분담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도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아동양육과 가족 돌봄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사업들은 전통적인 마을이나 지역사회가 공동체성과 유대를 통해 가족 돌봄을 분담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전제한다. 마을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밀성을 높여 아동이나 노인에게 대한 공동의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역사회 내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주민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가 낮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쇠퇴한다는 주장(Gerard, 2010; Wolff, 2010)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쇠퇴를 막고, 공동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한다면 도시화 규모와 돌봄을 분담하는 가족친화성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화 규모가 높은 대도시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족친화성이 낮고, 반대로 도시화 규모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족친화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가족친화성은 공동체성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행정 인프라나 서비스 인프라의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김혜영 등, 2009), 관련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가족친화성이 농어촌지역의 가족친화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전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도시화 규모와 가족친화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정치활동 사례를 발굴하거나 다른 지역사회에도 보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Cha, 2010a; Cha, 2010b; Kim & Kim, 2010; Kim & Lee, 2010; Cha, 2011; 김선미 등, 2011). 또한 지역주민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탐구하는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에서는 지역주민이 가진 개인 및 가구특성, 자녀특성, 주택특성, 공공시설에 따라 선호하는 가족친화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밝혀졌다(Cha & Lee, 2011).

도시화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비교한 연구는 김혜영 등(2009)의 연구가 유일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행정인프라, 서비스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지역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대도시 5개 지역, 중소도시 6개 지역, 농어촌 7개 지역 총 18개 지역을 비교 및 평가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가족친화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농어촌, 대도시의 순서인 것으로 가족친화성이 평가되었다.

가족친화 기업환경에 대한 연구에 비해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화나 개념화는 물론 실태 파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실태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화 규모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시화 규모에 따라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그 차이를 줄여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가족친화성이 농어촌지역보다 더 낮다면 인프라의 문제보다는 공동체성이나 사회자본의 문제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프라 확대 보다는 공동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화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시화 규모와 가족친화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연령대, 성별, 직업, 소득수준, 주거유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시화 규모와 가족친화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관련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혜영 등(2009)의 연구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가족친화성을 비교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만을 활용하여 가족친화성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구별된다. 객관적 지표로 파악한 가족친화성 수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가족친화적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관적 평가가 또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주민들의 가족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다. Swisher, Sweet, and Moen(2004), Yoon(2011), Joo (2012)의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생애주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Swisher, Sweet, and Moen(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여러 생애과정 중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부모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가장 밀접한 시기인 학령전기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역사회 범위에서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정단위 기준으로 지역사회 범위를 구분하였는데, 연구에 따라 행정동을 범위로 규정하기도 하고 행정구를 범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나 그 밖의 연구들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적인 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사회적·정서적 공간을 지역사회 범위로 정하고, (근린)지역, 아파트단지, 동네, 마을이라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행정단위에 비해 공간적·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Claudia et al.(2012)은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들이 자의적이거나 모호하게 지역사회 범위를 규정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Noh and Chin(2012)도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범위를 물어본 결과, 행정구나 행정동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다수이긴 했지만 아파트단지나 서울시 등 다른 의견도 나왔다. 즉, 지역사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설문을 하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지역사회를 떠올리고 응답하도록 지역사회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행정구나 행정동으로 지역사회 범위를 다르게 설문한 경우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약 행정구나 행정동의 분석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지역사회 범위를 혼용해도 무방하지만 지역사회 수준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지역사회 범위 설정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전국의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에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동(읍면리)과 시(군구) 수준의 지역사회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가족정책을 설계하고,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시화 규모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특히 도시화 규모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달체계를 설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현재의 정책 전달방식을 평가하고 재고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족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유아기 가정에게 지역사회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도시화 규모에 따라 동(읍면리)과 시(군구) 수준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연구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운동이나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관점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8개 시범사업 지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유 의식이 확산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거점의 지원방안을 제안한 김선미 등(2011)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 연구는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를 위해 주민리더와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Kim and Kim(2010), Kim and Lee(2010), Cha(2011), Kim(2011)도 이와 유사한 관점의 연구들이다. Kim and Kim(2010)은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심층면접해서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친화마을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Kim and Lee(2010)는 도시와 다른 특성의 농촌인 전라남도 장흥군의 '가족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자들을 심층면접해서 공무원, 마을 주민, 마을 대표의 상호작용 방식과 역할을 분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Cha(2011)에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화인권역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전개과정을 참여관찰한 Kim(2011)은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요구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삶터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의 작업으로 조성되는 마을이 결국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돌봄을 사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Cha, 2010a).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흐름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성요소나 요인을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들도 있었다. 가장 먼저 Sweet, Swisher, and Moen(2005)은 미국 맞벌이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웃들과 생애주기 유사성, 레크리에이션 기회, 교육 기회의 지역사회 인프라와 지역사회 역량에 따라 지역주민이 느끼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연구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승아 등(2007)과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4가지 주요원칙으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혜영 등(2009)은 이 4가지 주요원칙에 따라 행정인프라, 서비스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지역환경의 측정도구를 개발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8개 지역의 가족친화성을 평가하였다. Park et al.(2009)도 이 원칙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가족 돌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생활가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측정도구도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의 네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가족친화 구성요소를 찾고자 한 반면, Park(2010), Cha and Lee(2011)와 Noh and Chin(2012)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요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지각하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Park(2010)은 서울시와 지방도시의 기혼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거주환경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지역사회의 생활정보 접근성이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Cha and Lee(2011)는 대전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418명을 대상으로 공동시설 선호와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녀특성, 주택소유여부, 가족참여, 교육수준, 공동보육 및 작업, 문화체육시설이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Noh and Chin(2012)도 서울시에 거주하며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서비스인프라 인지, 사회자본, 학력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족이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가족이 받는 영향도 다르다는 걸 강조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역주민의 개인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Swisher, Sweet, and Moen(2004)은 미국 뉴욕 지역 727명의 맞벌이 부부를 연구한 결과,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Yoon(2011)

과 Joo(2012)도 노년기의 지역사회 상호작용 방식이 다른 생애주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홍승아 등(2007)의 연구와 김혜영 등(2009)의 연구는 돌봄을 분담하는 사회환경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라고 정의하면서 돌봄 영역을 크게 노인돌봄과 아동돌봄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크게 두 차원으로 나뉘거나 노인돌봄과 아동돌봄은 특성이 다르고, 가족생활주기상 학령전기인 가정의 원가족 부모세대는 생애주기상 중년기에서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불과해 측정도구에서 노인 돌봄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연구대상을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하였다. Noh and Chin(2012)도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중에서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2. 지역사회 범위 및 도시화 규모와 가족친화성

선행연구들은 연구마다 지역사회 범위를 다양하게 조작적 정의하였다. 미국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편의 연구를 진행한 Sampson(2012)은 지역사회 수준을 4개의 층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연구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범위를 바꿔가며 한 수준의 지역사회 범위를 분석하거나 둘 이상의 지역사회 범위를 다층분석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는데 Jung and Cho(2007)는 지역사회 범위를 서울시 도봉구로 정하였고, Jung, Gil, and Cho(2009)에서는 서울시 S구로 정하였다. Jung and Cho(2012)에서는 서울시 D구와 Y구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Noh and Chin(2012)도 서울시의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범위를 물어 응답이 가장 많은 '구'를 지역사회 범위로 정하였다. 한편, Jung and Cho(2011)는 분석단위를 '행정동'으로 정해서 개인과 행정동의 두 수준을 다층분석(HLM)하였다. Jung(2011)에서는 개인과 행정동의 두 수준으로 다층분석을 한 후, D구와 Y구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연구마다 지역사회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동과 구 수준의 지역사회 범위에 따라 분석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혜영 등(2009)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지역을 한두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연구결과가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Noh & Chin, 2012).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사회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선미 등(2011)은 가족친화마을 시범 조성 사업이 진행된 8개 지자체를 연구하였는데 도시화 정도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주택유

형에 차이가 있었고, 주택유형은 세대동질성, 세대갈등, 일상적 대면관계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농촌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 내 협력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적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인구고령화라는 특징이 뚜렷했다. 그러나 '가족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장흥군을 연구한 Kim and Lee(2010)는 농촌 지역인 장흥군에서도 주민조직이 주도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받쳐주는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원칙이 유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Kim and Kim(2010)은 지역사회 규모로 봤을 때 중소도시인 경기도 용인의 수리지역에서 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거점의 역할을 하는지 심층면접한 결과, 주민 리더와 주민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행정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지역환경 요소로 18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평가한 김혜영 등(2009)의 연구에서도 중소도시가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행정인프라 영역에서 대도시나 농촌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는 행정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지역환경의 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지역주민의 연령대, 성별, 직업, 소득수준, 주거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주민이 가지는 정책적 요구도 다를 수 있다. 도시화 정도에 따라 자녀양육 현황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아이돌보미 이용현황을 분석한 김선미 등(2010)의 연구를 보면, 아이돌보미 한 달 평균 이용요금과 연계건수에서 차지하는 이용가정의 서비스 유형 비율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서문희 등(2009)의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과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주체의 비율이 달랐다. 김선미 등(2010)과 서문희 등(2009)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계층과 자녀양육 방식의 선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이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만든 설문지를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는 2012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 1,038명이 응답했다. 본 조사에 응답한 패널은 1단계로 전문 리서치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69만 명 중에서

무작위추출 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 무작위추출된 12,538명에게 메일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설문메일을 전송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설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문에 참가할 수 없고, 문항에 답변하지 않아도 설문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 결측값은 없다. 그러므로 최종분석 대상자 숫자도 본 조사 응답자 숫자와 동일한 1,038명이다. 한편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2012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변수의 응답분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측정할 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구성요소인 안전, 환경, 생활편리성, 만족도 등을 포함시켜 측정된 경우가 있고(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를 직설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Sweet, Swisher, & Moen, 2005; Noh & Chin, 2012).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구성요소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의 측정도구들은 이 중에서 한 측면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측정도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과 설문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를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측정도구는 김혜영 등(2009)과 홍승아 등(2007)이 제안한 안전, 환경, 생활편리성, 만족도 4문항에 Sweet, Swisher, and Moen(2005)과 Noh and Chin(2012)이 제안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 1문항을 더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입장,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강조하는 입장,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물리적·지리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에 비해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강조하는 입장인 경우 지역사회 범위가 보다 뚜렷하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물리적·지리적 특성을 강조할 때도 지역사회 범위와 분석수준은 여러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념과 범위가 각자 다를 경우 척도의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범위를 살펴 본 Noh and Chin(2012)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범위를 지자체 범위나 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파트/빌라

/주택단지, 특별시, 아이들의 통학권 등의 응답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서로 지역사회 범위를 다르게 인지하는데서 발생하는 측정도구 타당도 문제를 줄이고자 지역사회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정했다. 행정구역은 동(읍면리)과 시(군구) 두 수준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완성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척도는 행정구역 동(읍면리) 수준의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리)"은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리)"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리)"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현재 만족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읍면리)"은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 한다' 5문항이며, 동일한 내용을 행정구역 구(시군)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였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동(읍면리) 수준과 구(시군) 수준의 내적 일관성에 관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92와 .93이다. 동(읍면리)과 구(시군) 수준 모두 내적 신뢰도 정도가 높아 다섯 문항이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 하위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일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5문항을 더한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개인 및 가구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형을 물어보았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남성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연령은 응답자가 만 연령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5개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는 대학교 중퇴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준집단은 대학교 졸업으로 설정하였다. 직업유형은 '전업주부 및 미취업',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직 및 생산직', '자영업 및 기타'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준집단은 사무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구 특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주택종류를 측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로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분석 할 때는 응답자가 입력한 만원 단위 값을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준집단은 자가로 설정하였다. 주택종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기타' 네 집단으로 나누고 기준집단은 아파트로 설정하였다.

3) 도시화 규모

도시화 규모는 행정구역 및 도시화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 규모 중 대도시는 특별시(特別市)·광역시(廣域市)의 동(洞) 거주자이며, 중소도시는 시(市)의 동(洞) 거주자이다. 농어촌은 군(洞)·시(市)·광역시(廣域市)의 읍면리(邑面里) 거주자이다.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규모를 구분하는 행정단위 기준을 시군구로 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보다 한 단위 더 세부적인 행정구역인 동(읍면리)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규모를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의 차이점으로 인해 광역시(廣域市)나 시(市)의 읍면리(邑面里) 거주자인 경우 선행연구들의 지역사회 규모 구분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에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 즉,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하게 지역사회 규모 구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먼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응답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지리적 분포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GIS)의 좌표부여(geocoding)와 지도화(m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시화 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에는 STATA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공간자료 가공 및 분석에는 Quantum GIS 1.7.3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총 1,038명 중 절반 이상(55.6%)이 대도시에 거주하였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34.3%,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0.1%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하였다. 연령대는 30대가 57.4%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3.4세(표준편차 4.7)이다. 학력은 응답자의 약 80%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 이상이었고, 대학교 중퇴 이하는 21%에 불과하였다. 직업유형은 사무직이 42.6%로 가장 많았고, 주부 및 없음이 26.5%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038)

Variable	Categories	Freq. (%)	Variable	Categories	Freq. (%)
Sex	Male	513(49.4)	Monthly Household Income (in thousand won)	Under 2,000	75(7.2)
	Female	525(50.6)		2,000~3,999	535(51.5)
Age	20s	304(29.3)		4,000~6,000	317(30.5)
	30s	596(57.4)		Over 6,000	111(10.7)
	40s	138(13.3)	Home Ownership	Own	469(45.1)
Educational Level	Under College Graduate	218(21.0)		Lease	427(41.1)
	College Graduate	716(69.0)		Monthly rent	86(8.3)
	Post College	104(10.0)	Others	56(5.4)	
Job	Housewife or Unemployed	275(26.5)	Housing Type	Apartment	734(70.7)
	Professional	160(15.4)		Multiplex house	218(21.0)
	White Collar	442(42.6)		Single House	75(7.2)
	Sales or Service	67(6.5)	Others	11(1.1)	
	Self-Employed or Others	94(9.1)	Community Scale	Metropolitan	577(55.6)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356(34.3)
				Rural	105(10.1)

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절반이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고,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평균 금액은 372만원(표준편차 170.8)이었다. 도시화 규모를 보면, 주택소유형태는 자가(45.1%)와 전세(41.1%)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택종류는 응답자의 70.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빌라가 21.0%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7.2%에 불과하였다.

표집된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동일 연령대의 우리나라 평균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20대부터 40대까지의 도시화 규모별 비중을 보면, 대도시 48%, 중소도시 38%, 읍·면 14%의 비중을 이루었다.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년 2분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이하 전체가구 월 평균 소득이 394만 원이었다. 서문희 등(2009)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었고, 부모의 학력은 약 50% 정도가 대학교 졸업이고, 대학교 중퇴 이하가 40%를 조금 넘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대도시 45%, 중소도시 38%, 읍·면 1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표집된 본 연구대상자는 첫째, 학력수준이 다소 높고, 둘째, 월 평균 가구소득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40대 이하 전체가구에 비해서는 22만원 낮고 보육실태조사의 영유아가구보다는 약 75만 원 높은 수

치이다. 세 번째, 도시화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도시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농어촌 비중이 낮다.

<Table 1>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도시화 규모에 따른 월 평균 가구소득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도시화 규모에 따른 월 평균 가구소득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도시화 규모에 따른 학력을 비모수검정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는 이유는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설문조사로 자료수집을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연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

<Figure 1>은 지리정보체계(GIS) 좌표부여(geocoding)와 지도화(mapping)를 실시해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분포를 표시하고 도시화 규모와 비교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지역분포를 도시화 지도와 비교한 이유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분한 독립변수가 분포가 우리나라 도시화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Figure 1> 왼쪽의 a)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인데(<http://sgis.kostat.go.kr/>), 검게 색칠된 부분이 도시화 된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2 가운데 b)는 본 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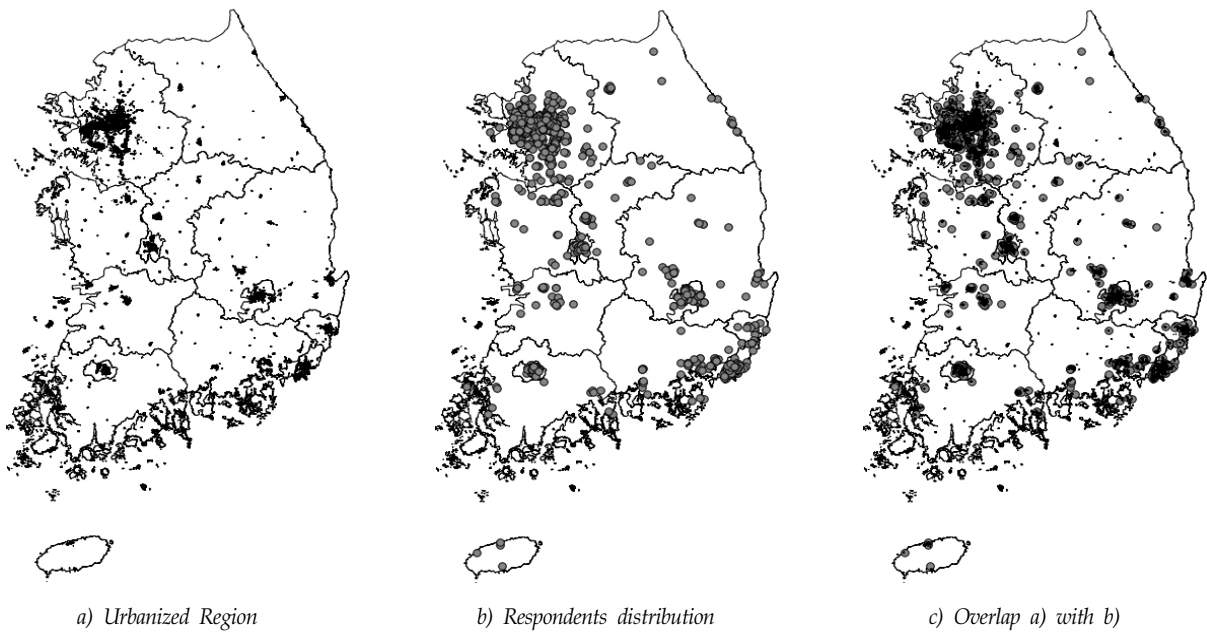


Figure 1. Urbanized Region in South Korea and Respondents Distribu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Variable	M	SD	MIN	MAX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Dong)	13.7	2.9	5	20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Si)	13.7	2.8	5	20

설문 응답자 거주지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오른쪽 c)는 왼쪽의 a)와 가운데 b)를 겹친 지도인데 본 연구 응답자 분포가 우리나라 도시화 정도와 거의 겹친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즉 본 연구 조사응답자의 지역사회 분포가 우리나라 도시화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의 c)를 통해 독립변수인 응답자의 지역사회 규모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규모 중 대도시 거주자의 분포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지역에 쥘린 동그란 점이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특별시(特別市)와 광역시(廣域市)가 아닌 지역에서 검은 칠과 겹치는 동그란 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거주자는 검은 칠과 겹치지 않은 동그란 점으로 확인 가능하다.

3. 도시화 규모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종속변수 동(읍면리)과 시(군구)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응답분포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동과 구 수준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과, 동과 구 수준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표준편차만 .1 차이가 날 뿐 거의 유사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시와 동 수준에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차이는 동(읍면리)($F=6.99, p<.01$)과 시(군구)($F=9.15, p<.001$)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지역사회 규모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평균점수는 동(읍면리)과 시(군구) 수준 모두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았다.

일원분산분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도 하였다. 그 결과, 동(읍면리) 수준에서는 중소도시만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대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시(군구) 수준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낮은 정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중소도시나 대도시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만 보면, 동(읍면리)와 시(군구) 수준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

Table 3. The Effects of Community Scale on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Categories	N	Model 1 (Dong)			Model 2 (Si)		
		M(SD)	F	Scheffe	M(SD)	F	Scheffe
Metropolitan ^a	577	13.60(2.98)			13.61(2.79)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	356	14.13(2.73)	6.99**	b>a=c	14.03(2.66)	9.15***	b=a>c
Rural ^c	105	13.03(2.92)			12.72(3.07)		

p < .01, *p < .001

Table 4. The Effects of Individual, Household, and Community Scale on Perceived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Variable	Model 1 Dong (n=1,038)			Model 2 Si (n=1,038)		
	b	S.E	β	b	S.E	β
Sex ¹⁾						
Female	.21	.23	.04	.13	.22	.02
Age	.00	.02	.00	-.01	.02	-.01
Education Level ²⁾						
Under College Graduate	-.00	.24	-.00	-.02	.23	.00
Post College	.08	.31	.01	.09	.30	.01
Job ³⁾						
Housewife/Unemployed	-.56*	.28	-.08	-.27	.27	-.04
Professional	.47	.27	.06	.70**	.26	.09
Sales/Service/Production Employee	.55	.39	.05	.41	.38	.04
Self-Employed/Others	.27	.33	.03	.21	.32	.02
Monthly Household Income(log)	.34	.22	.05	.14	.22	.02
Home Ownership ⁴⁾						
Lease	.28	.20	.05	.16	.19	.03
Monthly rent	.45	.35	.04	.37	.34	.04
Others	-.10	.42	-.01	.05	.40	.00
Housing Type ⁵⁾						
Multiplex house	-1.35***	.23	-.19	-.89***	.23	-.13
Single House	-.99**	.35	-.09	-.51	.34	-.05
Others	-.66	.87	-.02	-1.05	.84	-.04
Community Scale ⁶⁾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48*	.19	.08	.38*	.19	.06
Rural	-.72*	.31	-.07	-1.04**	.30	-.11
Constant	11.70***	1.04		12.97***	1.37	
F		4.53***			2.96***	
R-square		.07			.05	
Adj. R-square		.05			.03	

Note) 1)Reference group is Male, 2)Reference group is College Graduate, 3)Reference group is White Collar, 4)Reference group is Own, 5)Reference group is Apartment, 6)Reference group is Metropolitan

*p < .05, **p < .01, ***p < .001

고, 도시화 규모별 차이점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조사응답자의 개인이나 가구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하고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4.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한 이후의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인식

<Table 4>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화 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다회귀분석은 동(읍면리)과 시(군구) 수준으로 구분해 두 번 실시하였다. 동(읍면리) 수준(4.53, $p < .001$)과 시(군구) 수준($F = 2.96$, $p < .001$)의 회귀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먼저 동(읍면리) 수준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이 높고,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낮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직업유형, 주택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직업유형을 보면, 사무직에 비해 전업주부 및 미취업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낮았다. 주택종류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다세대주택/빌라 거주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낮았다. 그 외에 성별, 연령, 학력, 주택소유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군구) 수준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동(읍면리) 수준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가장 높고, 농어촌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가장 낮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직업유형과 주택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직업유형을 보면,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택종류를 보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다세대주택/빌라 거주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에 성별, 학력,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시화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지역주민이 가지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를 도시화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한두 개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만을 조사해서 그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시키거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정책들은 정책 수요자인 가족 입장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화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수준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았다. 중소도시 주민들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은 것은 김혜영 등(2009)에서 설명했듯이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공식적인 영역의 행정인프라와 서비스인프라 수준이 낮지 않고, 비공식적인 영역인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수준도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의 이러한 강점이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의 순으로 가족친화성이 평가된 김혜영 등(2009)의 결과와 다소 다르다. 본 연구는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농어촌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인프라 등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인프라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체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판단한 객관적 지표와 다르게 지역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수준이 지역사회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동(읍면리) 수준과 시(군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할 때 지역사회 범위를 행정단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요인을 통제하면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동(읍면리)이나 시(군구) 중에서 어떤 수준으로 분석하든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직업유형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읍면리) 수준에서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전업주부 및 미취업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이 낮았다. 사무직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전문직 종

사자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시(군구)의 분석 수준에서 높았다. 선행연구 중에서는 Noh and Chin(2012)이 서울시의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살펴보고, Cha and Lee(2011)는 대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취업여부에 따라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선호를 살펴봤는데 두 선행연구 모두 취업여부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과 달리 선행연구들이 특정 지역사회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직업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취업여부만 분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연구마다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 보다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종류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동(읍면리)과 시(군구) 수준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세대주택/빌라에 거주하는 경우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낮았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을 비교했을 때, 다세대주택/빌라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낮은 정도가 중다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된 요인들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도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주택종류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ha and Lee(2011)는 연구대상을 아파트 거주자로 한정하였고, Park et al.(2009)은 주거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가족친화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낸 주택종류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의 밀접성은 선행연구가 강조한 주거공간이나 근린지역의 물리적·공간적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취학자녀 부모들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면 농어촌의 미취학자녀 부모들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도시화 정도의 차이 혹은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학의 어떤 특정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정책적으로 볼 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이나 정책은 중소도시의 가족친화적 구성요소를 찾아 발전시키고 농어촌의 가족친화 저해요인은 감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모델은 지역사회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의 정책수요자를 만족시켜주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사회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지자체나 지역사회 내 사업기관의 재량을 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강기정 등(2010)은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도시형, 농도복합형,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규모에 따라 기관의 비전, 핵심과제, 과업, 조직구조, 사업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학의 특성에 맞게 기관들이 스스로의 비전, 조직구조를 결정하고, 사업을 특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미취학자녀 양육기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취학아동 돌봄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측정하였고, 학령전기 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생애주기의 가족과 관련된 지역사회 가족친화 구성요소를 배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사회학의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요소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없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규모만을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셋째, 대도시가 과대표집 되고 농어촌이 과소대표집 되어 연구대상자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다소 높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친화성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이 단계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도시화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수준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권한 확대 근거를 실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

- 강기정·박정윤·송원영·박경애·이은정(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표준화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선미·이기영·이승미·김은정·김소영·유재연(2010). 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김선미·이승미·노영주·송혜림·조영희·김소영(2011). 지역 돌봄 기능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혜영 · 홍승아 · 이택연 · 선보영 · 진미정 · 홍성만(200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문희 · 김은설 · 최진 · 안재진 · 최혜선 · 김유경 · 조애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200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방안 연구-직장 · 지역사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 相馬直直(상마직직) · 조순주 ·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ha, S.(2010a). The role of institution for family-friendly community initiated by local people -The case study of livable community making project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77-100.
- Cha, S.(2010b). A discussion of the family-friendly village model and important fact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2), 63-76.
- Cha, S.(2011). A study on the plan to reinforce the resident's capacity to build family-friendly community-focused on educational program of livable community building-.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3), 23-42.
- Cha, S. & Lee, H.(2011). A study on preferences for apartment interiors, exterior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a family 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Focused on apartment dwellers in Daejeon cit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45-62.
- Claudia, J., Coulton, M., Zane, J. & Tsui C.(2012). How big is my neighborhood?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on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Published online 11 August, DOI 10.1007/s10464-012-9550-6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40x94702q8057262/>
- Gerard, D.(2010). *Community(2nd Ed)*. London ; N.Y.: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Jung, M.(2011). *The relations of community capacity and healthy behavior among Seoul residents: A multi-level study of contextual effects using community capacity indic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Jung, M. & Cho, B.(2007). The influence of community capacity in health status. *보건과 사회과학*, 22, 153-182.
- Jung, M. & Cho, B.(2011). A multi-level study of contextual effects of community capacity on health status among Seoul residents: focused on social qu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4), 1-14.
- Jung, M. & Cho, B.(2012).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level and community-level community capacity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 A comparison of D-gu and Y-gu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9(1), 39-57.
- Jung, M., Gil, J. & Cho, B.(2009). The measurement of community capacity us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lan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3), 35-48.
- Joo, J.(2012).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the elderly's lives in a renewed area : Exploring a changing community and its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S.(2011). *A study focused on rural reside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a liable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S. & Kim, S.(2010). A study on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ctivity of the community library and the apartment house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73-96.
- Kim, S. & Lee, S.(2010). A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family-friendly communit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101-126.
- Noh, S. & Chin, M.(2012).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among parents with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35-149.
- Park, S.(2010).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married men/women with children : Focused on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mily support

facility satisfaction, family support program satisfaction, nurture and educ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53-66.

Park, S., Lee, W., Kim, H., & Ryu, J.(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가로 연구. *Family and Culture*, 21(1), 151-174.

Sampson, R, J.(2012).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weet, S., Swisher, R. & Moen, P.(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596-606.

Swisher, R., Sweet, S. & Moen, P.(2004).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81-292.

Wolff, T.(2010). *The power of collaborative solutions : six principles and effective tools for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Yoon, S.(2011).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meaning of life experiences of older people in rural commun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10년. <http://kosis.kr/index/index.jsp>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2012년 2분기. <http://kosis.kr/index/index.jsp>

통계청.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

접수 일 : 2012년 09월 13일

심사 일 : 2012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16일